

No.20160217-001

제목: 소녀의 시간

저자: 히구치 유스케

페이지수: 320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1월 09일



<내용소개>

매력적인 탐정 유즈키 소헤이의 미해결 사건 조사기

탐정이 등장하는 미스터리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탐정'이다. 물론 사건 자체의 치밀한 구성과 스릴감, 반전을 안겨주는 플롯도 필수 요소다. 하지만 독자는 주인공인 탐정의 시선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진실을 밝혀내는 간접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탐정은 반드시 매력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주인공인 '유즈키 소헤이'는 등장 인물들은 물론 독자의 마음까지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인물이다. 유즈키는 작가의 전작이자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 『그녀는 아마도 마법을 사용한다』에서 이미 활약을 펼친 바 있으며, 7년 만에 작가의 신작 소설로 돌아왔다. 원래 형사였던 유즈키는 38살의 중년 남성이며, 미녀가 얹힌 사건을 맡게 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타입이다. 결혼했지만 아내와 별거 중이고 딸 카나코와는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형사를 그만두고 사립 탐정 일과 범죄 관련 글을 쓰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작품은 유즈키가 미해결 사건을 맡게 되며 시작된다. 2년 전쯤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피해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조직 PSE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여고생이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종결됐다. 그런데 유즈키가 다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해당 사건 관계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만다. 유즈키는 이 죽음이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런 유즈키의 주위에는 미녀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출연한다. 유즈키가 글을 투고하는 잡지의 편집자인 오다카, 불륜 상대 사에코, 함께 사건을 파헤치는 여형사 유코, 사건의 원래 의뢰인인 에다자와, 그 외에도 사건에 관계된 모녀 등 여기저기서 나타난 미녀들이 주인공을 곤란하게 만든다. 다소 행실이 가벼워 보이는 유즈키의 진짜 매력은 의외의 인간성이다. 그는 마침내 진범과 사건의 전말을 깨닫지만 나서지 않는다. 범인에게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하는 한편, 자수하든 비밀을 간직하고 살든 어느 쪽이나 지옥과 다름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유즈키 소헤이는 독자에게 영원한 38살, 청춘을 즐기고 싶은 인간적인 탐정으로 남을 것이다. 미녀들이 결혼한 남자의 주변에 비현실적으로 많은 설정이지만 불쾌함을 느낄 만한 문란한 면모는

없고, 그 와중에도 끈질기게 미스터리를 추적해 나가는 재미를 놓치지 않는 글이다. 남성 독자라면 질투와 통쾌함을 번갈아 느낄 것이며, 여성 독자에게도 추천할 만 한 엔터테인먼트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또는 유즈키 시리즈의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

<저자소개>

히구치 유스케

1950 년 군마현 출생. 고쿠가쿠인대학 중퇴. 1988 년 『나와 우리의 여름』이 산토리 미스터리 대상의 독자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하였다. 두 번째 장편인 『바람소녀』가 제 103 회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다. 『그녀는 아마도 마법을 사용한다』로 시작된 시리즈를 비롯하여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인기가 있다. 그 외에 『사과나무 길』, 『비의 냄새』, 『피스』, 『버려진 고양이라는 이름의 고양이』, 『원숭이의 슬픔』, 『어항의 여름』, 『웃는 소년』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60217-002

제목: 동물들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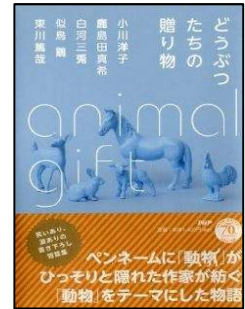
저자: 오가와 요코, 카시마다 마키, 시로카와 미토, 니타도리 케이,

히가시가와 도쿠야

페이지수: 23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1월 28일



<내용소개>

작가 이름 속에 숨은 동물들을 주제로 한 단편 소설 모음집

이 타이틀은 다섯 동물이 등장하는 총 다섯 편의 단편 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말의 귀에 살인」은 요코라는 소녀와 루이스라는 말이 짝을 이뤄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조용한 동네의 한 목장 주인이 죽은 채로 발견된다. 아르바이트 하던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도망가자 주인이 쫓아갔고, 불운하게도 말의 발에 맞아 죽은 것으로 마무리 되어 간다. 하지만 어딘가 미심쩍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요코의 목장에서 기르는 '루이스'라는 말의 목소리는 요코의 귀에만 들린다. 루이스는 세심한 추리력으로 다른 가설을 제기하고, 이는 사실로 드러난다.

「행운의 발자국을 쫓아서」는 대인기피증을 지닌 마리와 프랑스 청년 티에리의 이야기다. 마리는 엄마가 집을 떠난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티에리와 가짜 점술사 노릇을 한다.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라진 토끼를 찾아달라는 오오야부 부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데 성공한다. 돌아온 토끼는 오오야부 모녀의 이별을 재촉하는 셈이 되지만, 모두에게 행운의 징표로 남게 된다.

「공짱」은 미지의 '공짱'을 기다리는 야마노와 그 친구인 '나'의 이야기다. 산에서 사슴 신을 만난 야마노는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계시를 받고 그 사람이 공짱일 것이라 확신한다. 야마노와 나는 돌고 돌아,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공짱이었음을 알게 된다.

「건어차는 닭의 여름 휴가」의 가코가와, 도비타는 취재를 위해 동급생의 집을 찾아가다. 둘은 하얀 까마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갔지만 수상한 닭을 발견하고, 생각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도주 중이던 범인을 체포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 작품인 「검은 새끼양은 어디에」에는 하얀 양에서 태어난 까만 양이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피하고, 탁아소 원장인 한 여자가 맡아 기른다. 좀처럼 웃지 않는 그녀는 마을에서 걸돌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 어느 날 축사를 몰래 빠져나간 양이 인적 드문 숲 속에서 죽은 채 발견 된다. 뒤이어 원장도 사고로 죽는다. 생전에 정성스레 돌봤던 까만 양과 아이들 덕분에, 그녀의 장례식은 쓸쓸하지 않았다.

소설에 나온 동물들은 모두 작가의 이름 속에 숨은 동물들이다. '오가와 요코(小川洋子)'에는 양(羊), '카시마다 마키(鹿島田真希)'에는 사슴(鹿), '시로카와 미토(白河三兎)'에는 토끼(兎), '니타도리

케이(似鳥鷄)에는 닭(鷄), '히가시가와 도쿠야(東川篤哉)'에는 말(馬)이 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뜻을 모은 작가들의 글을 읽으며, 흥미진진함과 따뜻한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말의 귀에 살인 (히가시가와 도쿠야)
행운의 발자국을 쫓아서 (시로카와 미토)
콩짱 (카시마다 마키)
건어차는 닭의 여름 휴가 (니타도리 케이)
검은 새끼양은 어디에 (오가와 요코)

<저자소개>

오가와 요코

1962년 오카야마현 출생. 와세다대학 제1문학부 문예과 졸업. 1991년 「임신 캘린더」로 제104회 아쿠타가와상, 2004년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제55회 요미우리 문학상, 제1회 서점대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브라만의 매장』으로 제32회 이즈미교카 문학상, 2006년 『미나의 행진』으로 제42회 타니자키 준이치로상, 2013년 『작은 새』로 예술선장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하였다.

카시마다 마키

1976년 도쿄 출생. 시라유리여자대학 문학부 프랑스문학과 졸업. 1998년 『두 마리』로 제35회 문예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2005년 『6000번의 사랑』으로 제18회 미시마유키오상, 2007년 『피카르디의 세 번』으로 제29회 노마문예신인상, 2008년 『제로의 왕국』으로 제5회 이토야마상, 2012년 『저승순례』로 제147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였다.

시로카와 미토

2009년 『수영장 밑에 잠들다』로 제42회 메피스토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2012년 『나를 모르고』가 「책의 잡지 증간 추천 문고왕국 2013」에서 오리지널문고대상 BEST1에 선정되며 주목 받았다.

니타도리 케이

1981년 치바현 출생. 2006년 『이유가 있어 겨울에 나온다』로 제16회 아유카와테츠야상에 가작 입선하면서 데뷔하였다.

히가시가와 도쿠야

1968년 히로시마현 출생. 오카야마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2002년, 광문사 KAPPA NOVELS의 신인발굴 프로젝트 「KAPPA-ONE」 제1탄에 선정된 『밀실의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를

통해 프로로 데뷔하였다. 2011년에는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식사 후에』가 제 8 회 서점대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217-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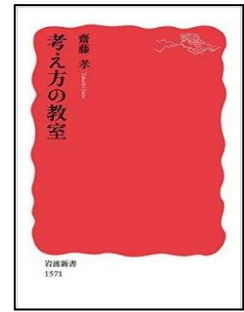
제목: 사이토 타카시의 생각하는 기술을 기르는 교실

저자: 사이토 타카시

페이지수: 240

장르: 인문 / 교육학

출간일: 2015년 11월 21일



<내용소개>

생각하는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교육서

학교나 직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해도, 갑자기 타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을 요청 받으면 다소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답하려면 평소에 연습해둬야 한다. 다양한 사건과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모여 개인의 주관이 되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배경 지식과 해설 위주의 암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감상을 주고 받는 시간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견해를 말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부담스러워 한다.

이 책은 사고력 훈련에 관한 교육서라고 볼 수 있다. 저자가 대학에서 교원 양성 코스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교육서라고 하니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상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어 본문 내용은 친숙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본문에서 믿기지 않더라도 자신의 제안을 무작정 따라 해 볼 것을 권한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거나, 창의성의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이 있다.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면, 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과제를 갑자기 해결하려면 머리 속이 엉키기 쉽다. 직접 표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과 및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방법은 실제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눈 앞의 문제를 원인, 결론, 중간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준다.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진짜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카르트 적인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가능한 작게 나눠 분할해 보기, 제로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을 조합해 보기, 자기 내부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의견을 나눠 보기, '왜?'라는 물음을 반복하기 등의 방법을 이어서 소개한다.

이 책은 사고 방법을 해설하는 것보다 '사고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생각하는 힘 또한 연습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 주장한다.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발상 능력, 짧은 순간 결정하는 판단력 모두 책에서 소개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익힐 수 있다. 총 16개의 레슨을 마친 후, 어느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회: 우선 편안해진다 -준비 스트레칭 편
- 제 2회: 어쨌든 해본다 -최초의 도전 편
- 제 3회: 속는 셈 치고 손을 움직여 본다 -신체를 사용하다 편
- 제 4회: 마법의 말을 소리 내 읽어본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편
- 제 5회: 발상력을 단련해본다 -「놀이」로 배우다 편
- 제 6회: 다른 눈으로 세계를 본다 -「스타일」찾기 편
- 제 7회: 과거도 미래도 전망 좋게 -계보의 시도 편
- 제 8회: 무리해서 1인 2역을 해본다 -지킬과 하이드 편
- 제 9회: 이질적인 것과 맞부딪혀 본다 -타인과 이야기하자 편
- 제 10회: 한결같이 「왜?」라고 물어 본다 -멈추면 진다 편
- 제 11회: 밖으로 열어 본다 -목소리를 전하자 편
- 제 12회: 한 걸음씩 나아가다 -절차의 힘 향상 편
- 제 13회: 「담력」으로 판단하다 -「결정하는」 비결 편
- 제 14회: 유연하게 수정해가다 -사고는 이어진다 편
- 제 15회: 직감을 움직이다 -목표 「사고의 달인」편
- 최종회: 이런 교실을 만들어 보자 -당신이 선생 편

<저자소개>

사이토 타카시

1960 년 시즈오카현 출생. 1985 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부 연구과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메이지대학 교수를 맡고 있다. 전문 분야는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론이다. 저서로는 『독서력』, 『커뮤니케이션의 힘』, 『교육의 힘』, 『고전의 힘』, 『소리 내서 읽고 싶은 일본어』시리즈, 『삼색 볼펜으로 읽는 일본어』, 『질문의 힘』, 『절차의 힘』, 『코멘트의 힘』등이 있다.

No.20160217-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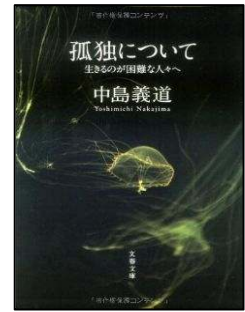
제목: 고독에 대하여 -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

저자: 나카지마 요시미치

페이지수: 210

장르: 논픽션

출간일: 2008년 11월 07일



<내용소개>

외로운 삶을 살아온 철학자가 적극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기까지의 이야기

우리의 삶은 항상 바쁘다. 출퇴근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치이고, 회사에서도 여기저기서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진다.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늘 과도한 정보가 흘러 들어온다. 그 때문인지 요즘에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휴가를 맞아 멀리 떠나는 대신, 집이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혼자 있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평소에는 오히려 혼자가 되면 불안해한다. 어느 집단에 속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불안함을 느낀다.

이 책에는 철학자인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고독한 삶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봉건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다. 청년 시절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시기도 있었다. 다시 절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리를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서 법학부에 입학했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교 시절 교수가 주도한 왕따에 시달렸으며 이로써 세상과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의 상황과 굴욕감도 솔직하게 쓰여있다. 자신은 결국 타인들로부터 멀어져 사는 것을 택했고 결국은 이를 즐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 고독할 때 생각한 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독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타인과 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열게 되면 고독을 즐길 수 없고 지치기 때문이다. 둘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불행을 느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싫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들은 저자가 고독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왔으며, 자신만의 뚜렷한 감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모든 이들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싫어하며 자신처럼 세상에서 멀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진심은 부제인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에서 엿볼 수 있다. 설령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 외로움과 고독함 사이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고독하게 살고 싶다

제 1장: 짝 고독했다

제 2장: 고독한 소년 시절

제 3장: 소독한 청년 시절

제 4장: 고독을 선택하다

제 5장: 고독을 즐기다

종장: 고독하게 죽고 싶다

<저자소개>

나카지마 요시미치

1946 년 출생. 도쿄대학 교양학부·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석사 과정 수료. 빈 대학 기초종합학부 철학과 수료. 철학 박사. 전기통신대학 인간 커뮤니케이션학과 전 교수. 현재 「철학 학원 칸트」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론, 자아론 전문. 저서로는 『빈 애증』, 『철학의 교과서』, 『시간을 철학하다』, 『인생 반 내려놓기』, 『칸트 입문학』, 『시끄러운 일본의 나』, 『사랑이라는 시련』, 『악에 대하여』, 『내가 싫어하는 10 명의 사람들』, 『「죽음」을 철학하다』, 『칸트를 읽는 방법』,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순수이성비판」을 알기 쉽게 설명하다』 등이 있다.

No.20160217-005

제목: 지도로 읽는 「국제 관계」 입문

저자: 신 준페이

페이지수: 239

장르: 사회 / 정치

출간일: 2015년 08월 05일



<내용소개>

지도와 그래프를 활용해 배우는 국제 관계학 입문서

이제는 국내 자원만으로 국가가 부강해지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경제·사회·학문·예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지리적 거리도 상관없다. 지구 건너편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금세 퍼지고, 타 국가 간의 알력이나 종교 분쟁에 휘말려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미국은 이전부터 러시아·중국·북한과 자주 대립해왔다. 유일한 휴전국가인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민감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주변 정세를 파악하고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오랜 역사에 걸쳐 종교로 갈등을 빚어온 중동 지역 분쟁이 IS라는 과격 무장 단체의 등장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한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무차별 테러가 전세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익과 국민을 보호하려면 세계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

이 책은 최근의 세계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불안정화에 따른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변화, 미국 사회 내 인종 및 격차 분석,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EU의 역사와 과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발전,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 사이버 및 우주 공간으로 확대된 형태의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저출산 및 노인 인구 문제에 직면하여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토 분쟁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 이민자가 늘고 경제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힘이 될 것이라 언급한다. 세계 정세에 대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고르게 살펴본다. 2015년 8월에 출판된 책이므로 최신 통계 데이터와 국제 기관 발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중동문제는 물론 스코틀랜드·스페인 카탈루냐와 바스크·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도 다루고 있다. 책 제목처럼 지도와 그래프가 적절히 삽입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국제관계학은 전문가에게 한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세계 정세가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 점점 늘어갈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넓고 알게라도

알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일본-불안정한 국제 관계에 대처

제 2장: 미국-리더십은 계속될까

제 3장: 신흥국-세계를 뒤흔든 성장력

제 4장: EU-장대한 실험이 그려낸 것

제 5장: 개발도상국-빈곤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제 6장: 글로벌리제이션-그 실태를 살피다

제 7장: 새로운 국제 주체-국제기관과 비정부 조직

제 8장: 21세기의 난제-새로운 전쟁형태, 그리고 지구온난화

종장: 일본의 과제를 생각하다

<저자소개>

신 준페이

1962 년생. 작가 및 편집자.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졸업, 호세이대학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 후 슈에이샤 근무를 거쳐 독립했다. 전문 분야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국제관계다. 저서로는『인류의 역사를 바꾼 8 개의 사건<1>,<2>』, 『세계의 국가-1 위와 최하위』외에 공저『바다 쓰레기-확대되는 지구환경 오염』, 『환경공동체로서의 한중일』 등이 있다.

No.20160217-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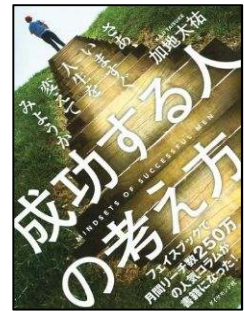
제목: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저자: 카지 타이스케

페이지수: 208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6년 01월 16일



<내용소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45개의 조언

누구나 저마다의 목표가 있다.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등 다소 막연하지만 그것들을 이뤄냄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고자 한다. 모두의 인생에는 가지각색의 장애물들이 있고, 좀처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에 체념하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의욕을 잃고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력을 발휘해 헤쳐나가는 이들이 있다. 뭔가 남다른 점이 있기에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을 거머쥐었을 것이다.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재한 칼럼을 모은 것이다. 저자의 인생에도 수많은 굴곡이 있었다. 어릴 때는 잦은 전학으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고등학교 중퇴 후 용접공이 되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갑자기 경영난에 처한 영어회화 학원의 경영자가 되었다. 동생을 병으로 잃었고,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난관을 헤치고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 저자는, 인생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성공에 다가서려면 미래에서 현재로 역행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일정을 계획하듯,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인맥과 지혜를 넓혀나가고 곤란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항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책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자세와 원리 원칙을 지키는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만 주위의 시선, 비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어기거나 모른 체 할 때가 있다. 그럴 수록 스스로가 꿈꾸던 성공과는 멀어질 것이다. 저자가 건네는 다양한 조언이 총 45개의 메시지로 정리되어 있다. 필요한 순간에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결심을 다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단어들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자기계발서, 특히 개인의 성공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책은 주된 내용이 비슷하다. 은근한 자랑과 자기 과시로 흘러가는 탓에 읽다가 흥미를 잃는 경우도 많다. 반면 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직

접 실천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을 잃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인생은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

제 1장: 인생을 컨트롤 하다

제 2장: 만남과 지혜의 문을 열다

제 3장: 곤란함을 극복하다

제 4장: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다

제 5장: 성공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

에필로그: 70만 시간을 살아나가다

<저자소개>

카지 타이스케

1976 년 오사카 출생, 주식회사 aim 대표임원을 맡고 있다.

한난대학교등학교를 중퇴하고 용접공이 되었다. 그 후, 샐러리맨이 되어 영어회화 스쿨에 다녔는데 1 년 뒤인 2004 년에 학원이 도산했다. 당시 직원으로부터 「몇 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이 실종되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상담 요청을 받았다. 400 만엔을 빌려 도와주고 자신은 샐러리맨을 계속해나갔다. 뜻하지 않게 오너 경영자가 된다. 그러나 3 개월 사이에 자금이 사라졌고 도와달라 말한 직원도 퇴사하였다. 그 후 영어회화 스쿨 경영을 동생에게 맡겼지만 1 년 후 병으로 죽었다.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안정적인 샐러리맨을 그만두고 급여도 나오지 않는 영어회화 스쿨 경영에만 매달린다. 그 후, NOVA 가 도산하고 영어교사였던 외국인 실업자가 많아졌다. 그저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런 행동이 신문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이후 순조롭게 업적을 올려나간다. 2015 년 2 월 6 일, 교통사고로 5 일간 의식 불명이 된다. 6 일째 되던 날 눈을 떴을 때,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이 세계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게 된다」고 깜짝 놀랐다. 스태프들과 사랑하는 딸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글 뿐이다」라고 깨닫고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의 연재를 시작했다. 말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이름을 감춘 채 시작했는데 8 개월 만에 '좋아요' 3 만개를 돌파했으며 월간 250 만명의 인기 웹사이트로 성장했다. 연간 1000 명 이상의 경영자와 대화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혼자서도 다수의 성공하는 사람을 배출해내고자 밤낮으로 기사 집필에 힘을 쏟고 있다. 야마다 호코쿠를 배우는 「야마다 주쿠」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양명학자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 홈페이지: <http://ekusia.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ikousuru/>

No.20160217-007

제목: 적은 물건으로 산뜻하게 살기

저자: 야마구치 세이코

페이지수: 127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6년 01월 27일



<내용소개>

4인 가족으로도 실현 가능한 미니멀리즘 생활방식 소개서

‘미니멀리즘’은 인테리어·가전 제품·패션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트렌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갖고 지내자는 주의다. 잡동사니 물건뿐 아니라 불필요한 인간관계, 잡념들도 버릴 것을 권유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과잉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만큼 외압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 주의자, 일명 ‘미니멀리스트’는 버리는 만큼 자신의 삶을 넓고 깊게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부부와 두 아이로 구성된 4인 가족의 미니멀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여러 인테리어 스타일을 거쳤다. 처음에는 아기자기하고 내추럴한 인테리어, 이후에는 단순하고 화려한 북유럽풍에 몰두했다. 하나를 사면 디자인을 맞춰 또 하나 사고 싶어지는 탓에 이것저것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건에 치이고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면서 미니멀리즘에 눈뜨게 되었다. 계속 더하는 인테리어에서 빼기 인테리어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저자는 책 초반에 미니멀리즘의 장점을 소개한다. 물건이 적어지면 집안일이 간단해지고 낮 시간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노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줄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매다 가족끼리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 집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실제 인테리어 편에서는 최소한의 물건으로 집안 공간을 활용하는 법, 식기와 수납 해결법, 청소와 세탁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인테리어 비법을 공개한다. 몇 개의 옷을 돌려 입는 코디법도 제안한다. 온 가족이 다같이 쓸 수 있는 물건으로 구입하기, 각자 역할을 분담 하기, 물건 처분 전에는 항상 상담하기, 문제는 가족 회의로 빠르게 해결하기 등 미니멀리즘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Q&A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

비슷한 주제의 책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리고 보기에는 멋지지만 독신 생활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는 실망을 안겨주는 책들이 많다. 반면 이 책은 미니멀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주부의 경험담이고 자기 집과 가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일이 보여준다. 본문은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진과 설

명이 담겨 있다. 저자의 블로그 팬 뿐 아니라 '소유하지 않고 생활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하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목차소개>

- Part1. 「미니멀리스트」와 물건이 적다는 메리트
- Part2. 미니멀리스트의 인테리어
- Part3. 미니멀한 취사와 수납
- Part4. 미니멀한 청소와 세탁
- Part5. 적은 옷을 돌려 입기, 1코디 제복화
- Part6. 가족이 적은 물건으로 살기

<저자소개>

야마구치 세이코

중도 미니멀리스트.

1977년 출생, 후쿠오카현 출신. 남편, 아들, 딸과 함께 4인 가족으로 오이타에 살고 있다. 다양한 인테리어의 시행착오를 거쳐 미니멀리즘에 눈뜨게 됐다. 운영 중인 블로그는 월간 페이지뷰가 150만을 넘는다. 일본 블로그 마을 「미니멀리스트」, 「라이프스타일」 페이지뷰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블로그 「적은 물건으로 산뜻하게 살기」

<http://yamasan0521.hatenablog.com/>

Twitter(@yamasan0055)

.

No.20160217-008

제목: 대단한 메모: 일의 스피드와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비밀

저자: 고니시 토시유키

페이지수: 253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6년 01월 20일



<내용소개>

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힘을 지닌 메모 방식 소개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메모를 한다. 종이나 휴대폰, 컴퓨터 메모장 프로그램 등 자신에게 편리하게 느껴지는 수단을 선택해 활용한다. 그런데 아무리 잘 적어놨어도 결국 누락하거나 한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메모 같은 건 일이 익숙지 않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했다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일상 생활 및 업무에서 메모의 효능을 실감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 책은 실제 도움이 되는 메모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 곳이나 글자를 적어두면 끝이 아니다. 메모는 머리 속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를 만드는 일의 기초가 된다. 저자는 정리, 설정, 고찰, 발견, 지시라는 다섯 개의 메모 포인트를 명심할 것을 강조한다. 먼저, 안건마다 조건과 요점을 정리한다. 그 다음 과제를 찾아내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다. 고찰 단계에서는 무엇이 유효한 해결책인지 생각한다. 이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동료 및 부하 직원들에게 역할을 지시할 수 있다. 각 프로세스에서 메모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다. 첫째, 다량의 정보를 동그라미·화살표·기호 등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신만의 무기로 만든다. 둘째, 어렵고 경직된 업무일수록 창의력을 발휘한다. 허들 메모, 만화 메모, 검정 하양 삼각 메모 등 독특한 방식으로 숨겨진 문제점을 찾거나 목적을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색인·일의 크기와 관계 설명·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피치 표현으로 메시지를 상대방 혹은 타겟에게 정확히 전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메모의 달인들이 지니고 있던 기술을 참고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메모 비법을 갖고 있다. 그림과 문자 중 자기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우선 머리 속에 있는 장면들을 모두 적어 내려가면서 정말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다.

저자는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며 많은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메모 기술을 고안 및 정리하였다. 그는 메모를 통해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우선 책에서 말하는 대로 미래 메모를 작성해보자.

업무 속도가 빨라지며 일이 즐거워지고, 과거의 아이디어를 수정 및 재활용하는 데 능숙해지면
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고, 리더십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메모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서장: 미래 메모를 시작하자

제 1장: 정리 메모

(3개의 「○」 / 화살표 「→」 / 기호 등)

제 2장: 붙이는 메모

(허들 메모 / 만화 메모 / 검정 삼각 메모 등)

제 3장: 전달 메모

(색인 메모 / '들'메모 / 스피치 메모)

제 4장: 달인의 메모

(베스트 셀러 작가는 메모에 무엇을 쓸까?)

<저자소개>

고니시 토시유키

POOL inc. 대표,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극작가 및 그림책 작가.

1968 년 교토 출생, 오사카대학 졸업 후 1993 년에 주식회사 하쿠호도에 입사하였다. 2006 년
독립하여 POOL inc.를 설립했으며, 「전하는 말」을 게재, CM 제작부터 상품 개발과 도시
개발까지 손을 뻗었다. 2008 년 「이온 레이크 타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국제 SC 협회세계대회에서 일본 최초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217-009

제목: 유전자 바꾸기 대작전

저자: 요코타 아키코(글), 츠카고시 후미오(그림)

페이지수: 125

장르: 아동 책

출간일: 2010년 12월



<내용소개>

하루카와 켄의 유전자 바꾸기 & 되돌려 놓기 작전

누구나 한 번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에서 마음이 들지 않는 곳을 집어내 더 예쁘고 멋지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 크고 동그란 눈과 오뎅코를 갖고 싶고, 얼굴이 작아지거나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바라거나, 머리가 더 뚝뚝해지기를 꿈꿔본다.

주인공인 여학생 하루카는 제2차 성장을 맞아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체의 변화를 겪는다. 그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인중에 나기 시작한 수염이다. 내심 좋아하고 있던 동급생 켄에게 콧수염이 났다고 놀림을 당한 뒤, 자기에게 털이 많고 질게 나는 것을 숨기고 싶어한다. 대책을 고민하다 찾아낸 것은 '유전자 탈모 크림'이라는 수상한 물건이다. 그 크림을 사서 발랐더니, 털이 없어지고 매끈매끈한 피부가 되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효과였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루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심각성을 인지한 하루카는 크림을 발명한 박사를 직접 찾아간다. 놀랍게도 켄 또한 그 곳을 찾아와 있었다. 켄은 반대로 털을 늘려주는 '유전자 발모 크림'을 사서 썼는데,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루카와 켄은 박사에게서 유전자 크림의 원리를 듣는다. 자기에게 있던 털과 관련된 유전자 특성을 없애버리면서, 그 유전자를 물려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억에서 하루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려는 박사에게 대항하다 마침내 자신의 유전자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도 알게 된다. 박사의 말대로 3일간 크림을 사용하지 않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억도 돌아왔다. 하루카는 다시 털이 자라는 피부를 보면서 기뻐한다. 물론, 유전자 바꾸기 크림 같은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농작물이나 다른 생물체에 적용하는 것을 보며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낸 이야기다. 결말에서 하루카는 유전자를 바꾸는 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안에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을 완성하는 개성 하나하나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은 하루카와 비슷한 나이의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다. 유전자는 부모가 물려준 패스워드라고 설명한다. 어려운 용어를 최소화하여 재미있는 이야기에 녹여 설명했다. 사전 지식 없이도 흥

미를 갖고 읽을 수 있다. 외모에 불만이 많아지기 쉬운 나이의 아이들에게, 하루카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1. 터무니없는 사건
2. 그런 패스워드 따위, 바라지 않아
3. 유전자 조작을 말겠습니다
4. 군의 크림
5. 아빠가 이상하다!
6. 언니의 추리
7. 할아버지에게까지 나타난 부작용
8. 모습을 나타난 미남 박사
9. 부작용은 없어질까?
10. 되살아나라, 나의 유전자

<저자소개>

요코타 아키코(글)

1957 년 도쿄 출생, 가쿠슈인대학 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제 13 회 닛산 「동화와 그림책 그랑프리」동화 부문 대상, 2007 키즈 익스프레스 21「창작 동화·창작 그림책·창작 디지털 그림책 콘테스트」 창작 동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일본 아동 문예가 협회 회원이다. 저서로는 「바,이,올,린」, 앤솔로지 「미스터리가 가득 3」, 「미스터리가 가득 7」, 「불가사의 파일 1」, 「괴담도서관 13」, 「우리들의 전쟁 체험 1」 등이 있다.

츠카고시 후미오(그림)

1967 년 군마현 출생. 도쿄 디자이너학원 그림책 창작 코스를 졸업하였다. 동화 그룹 '흙'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텔레파시 소녀 '란' 사건 노트」 시리즈 등이 있다.

No.20160217-010

제목: '왜?'에 답하는 재미있는 산수

저자: 미나미자와 미요지

페이지수: 144

장르: 아동 교육

출간일: 2010년 03월 10일



<내용소개>

산수를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획기적인 참고서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학포기자'가 늘어난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차츰 차츰 수학과 멀어지다가 끝내 체념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산수를 배우다가 도중에 문제 풀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다. 기존 참고서의 대부분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기 보다는 설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문제를 풀다가 생기는 의문점, 모르는 점에 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학 공부를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

이 책은 아이들이 산수 학습 중 갖게 되는 '왜?'라는 질문에 답해주려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용 교재로 만들어졌으며 1학년 부분과 2학년 부분이 나뉘어 있다. 단번에 알기 어려운 산수의 원리를 재미있는 그림과 예시 문제 및 풀이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닌, 학교와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발명가이기도 한 저자의 색다른 발상을 접목한 교재로, 아이들은 의문을 하나 하나 극복해나가며 수학적 사고력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본문 이미지>

すうじってなに?

りんごは 1こ, 2こ, えんぴつは 1ぼん, 2ぼんと かぞえます。この 1, 2を, すうじと いいます。
すうじは 1, 2, 3, 4, 5, 6, 7, 8, 9, 10と かきます。

れいだい 1 1から 10までの すうじを かきましょう。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れいだい 2 いちご, はな, おたまじゃくし, ひこうきは いくつ ありますか。かずを すうじで かきましょう。

 3 こ	 8 ひき
 5 ぼん	 2 き

お父さん お母さんへ 数と数字の関係は, 子どもにはむずかしいので, 繰り返し学習させましょ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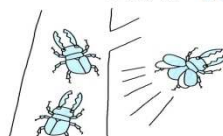
れいだい 3 えの じどうしゃの かずと おなじ すうじを ○で かきましょう。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おぼえておくこと かずは すうじで 1, 2, 3, 4, 5, 6, 7, 8, 9, 10と かくことができます。

もんだいにつよくなろう!

もんだい 1 きに くわがたむしが とまっています。1びきとんで いきました。きに とまっている くわがたむしは なんひきに なりましたか。すうじで しきと こたえを の なかに かきましよう。 ●こたえは 124 ペ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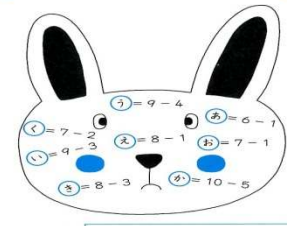
しき
こたえ ひき

もんだい 2 きんぎょばち から きんぎょが 2ひき とびだしました。きんぎょばちの なかに いる きんぎょは なんひきに なりましたか。すうじで しきと こたえを の なかに かきましよう。 ●こたえは 124 ペ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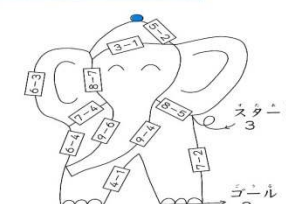
しき
こたえ ひき

もんだい 3 えの なかの あいいうおのきくののうち
らが はいるのは どれですか。 ●こたえは 124 ページ



こた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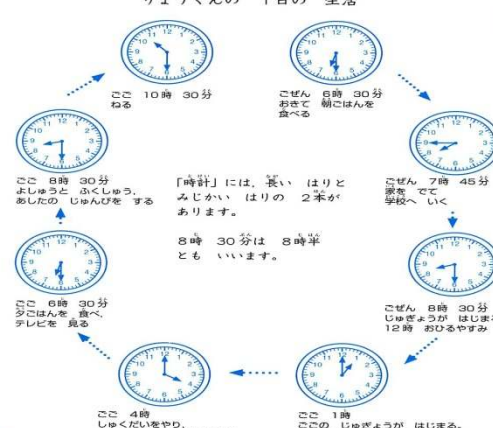
もんだい 4 こたえが スタートの
すうじと おなじになる
しきを とおって、ゴール
まで いくように セ
ンを なぞりましよう。



スタート 3
ゴール 3

時計は どう よむの?

りょうくんの 1日の 生活



ここの 10時 30分 ここの 8時 30分
ここの 8時 30分 ここの 7時 45分
ここの 6時 30分 ここの 8時 30分
ここの 4時 ここの 1時
ここの 3時

お父さん お母さん 時計の短いはりは何時を、長いはりは何分をあらわしていることを理解させましよう。

1時間は60分です。
長い はりが 1しゅう すると 1時間 (60分) です。
時計の 一目もりは 1分を あらわします。

れいだい 時計を見て 何時 何分か の 中に 書きましよう。

(あ) の時計 (あ) 

(い) の時計 (い) 

(う) の時計 (う) 

おぼえて おくこと 時計の 一目もりは 1分をあらわします。長い はりが 1しゅう すると 1時間です。

<목차소개>

1학년

(숫자란 무엇? / 길이와 높이는 같은 것? / 어떤 도형이 있는 것? 등)

2학년

(표, 그래프란 무엇? / 시계는 어떻게 읽는 것? / 구구단이란 무엇? 등)

<저자소개>

미나미자와 미요지

1931 년 교토 출생. 발명가 겸 학습교재개발자이다. 나라현립고등학교 교사, 국립 나라공업고등전문학교 및 킨키대학 이공학부 비상근 강사를 역임하였다. 전일본교직발명전(발명협회)에서 3 년 연속 입선 등, 발명가로서 풍부한 발상을 살려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산수 교육법을 고안했다. 다수의 학습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저서로는 『찰칵찰칵 퍼즐 놀이』, 『스피드 퍼즐 12 지 동물 놀이』, 『숫자를 세고 놀아보자 1·2·3』등이 있다. 그 외 학습잡지와 『산수 재미있는 대사전』 집필에 협력하고 있다.